

고창 태봉토성 발굴조사 현장공개

13일 학술자문회의와 함께 공개... 마한 입대목·목책·환구로 추정되는 제의유적 확인

고창군과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은 2023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문화재청·전라북도·고창군) 일환으로, 고창 태봉(예지리)토성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학술자문회의와 함께 현장 공개한다.

태봉 일원은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와 아산면 중월리·봉덕리 일원에 걸쳐 있고, 이 일대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사적)과 만동유적(도기념물) 등 삼국시대(마한~백제) 유적들이 밀집 분포한다.

태봉토성은 문헌 기록과 전설 등으로 인해 마한토성으로 알려졌고, 2019~2020년 지표조사와 표본·시굴조사를 통해 지상건물지, 도랑 유구, 토루 등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번 발굴조사는 이전조사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는데, 조사결과 마한 모로비리국의 의례와 관련된 환구(環溝)와 목책(木柵), 제의(祭儀) 유구 등이 확인됐고, 토루는 연질토기편이 포함된 성토층과 기단석렬, 관축시설, 수구(水口) 등 마한~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태봉 정상부에는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로 추정되는 기동자리와 그 주위로 입대목 보호시설로 추정되는 목책열(木柵列)이 확인됐다. 또한 도랑형태의 환구가 정상부를 감싸듯 둘러져 있고, 내부에서는 의례용 토기인 두형토기(豆形土器)가 출토됐다.

환구는 주변의 고창 죽림리, 익산 영등동 등에서 조사됐는데, 태봉토성에서는 환구와 목책이 한 공간에서 확인됨에 따라 마한의 소도(蘇塗) 가능성 및 마한 민속신앙의 실체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상부에는 다수의 기동 자리들이 확인됐는데, 이 중에는 주위를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망루(望樓)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또한, 북쪽 토루 일원의 조사결과, 토성토층과 그 위로 관축기법과 함께 기단석렬, 관축목주(板築木柱: 기동자리), 수구(水口) 등이 확



태봉토성 토루 전경

인되어 삼국(마한)~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축된 토루의 기단석렬 아래에는 성토층이 남아있고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어 이전 시기의 토성이 존재했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토루는 성토층을 정지한 후, 내·외측에 기단석렬(1단)을 만들었고, 기단석렬과 맞닿도록 흙을 쪼개어 쌓아 올린 양상 등이 확인돼 마한~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석렬 밖으로는 관축을 위해 나무 판자를 지지하는 관축목주인 기동자리들이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이를 통해 관축 단위 및 구간 별 축조양상을 파악했다.

수구는 석재를 이용해 축조했는데 토루를 관통했다. 입수구는 석재를 4~5단으로 쌓았고, 출수구는 1단으로 쌓은 후 뚜껑돌을 덮어 토성

외부로 흐르도록 했다.

삼덕섭 고창군수는 "태봉토성은 삼한(마한) 시대에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축조 세력과 배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고창 '모로비리국'의 실체와 토성의 축조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앞으로 고창의 마한 역사·문화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활용 계획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문화예술과(063-560-2943) 및 조사기관인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063-903-5409)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 티켓링크서 순번예약시스템 도입

군산시 예술의전당은 오는 12월부터 '2024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 방법이 새롭게 바뀐다고 밝혔다.

그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은 선착순 방문접수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새벽출석, 특정 시간대 대기 출몰 등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술의전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오는 2024년 정기대관부터 온라인 포털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한 순번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순번예약시스템'이란 신청자가 전당 방문 희망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해당일에 전당을 방문해 대관을 신청하는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티켓링크 회원가입이 필수사항이다.

2024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예약은 △공연은 12. 1(금) 10:00~12. 6(수) 17:00 △전시회는 12. 5(화) 10:00~12. 8(금) 17:00까지 티켓링크 온라인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티켓링크에서 순번예약 후 대관 방문 신청은 △공연방문 접수일 12. 4(월)~12. 6(수) △전시방문 접수일 12. 7(목)~12. 8(금) 접수기간

중 본인의 예약일에 맞춰 지하층 리허설실을 방문해 대관신청 허가서 및 공연(전시)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순번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새벽출석기 같은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관 이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시민과 고민하여 예술의전당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하거나 공연기획계(063-454-553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 아트플랫폼서 가을축제 즐겨요”

전북문화관광재단, 11일 정읍 낙서참고 정서 '단풍낙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1일 전북 아트플랫폼 '낙서참고 정(정읍시 금봉동 222-2)'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을 위한 가을축제 '단풍낙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장산 단풍철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단풍을 주제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족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미술사 박태영의 '유쾌한 미술쇼, 박태영'로 1층 실내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각 40분간 2회 진행된다.

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풍 무드등 만들기, 정읍 문화유산등 만들기, 믹스브릭·박브릭 체험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 관객을 위한 캐릭터인



형과 사진촬영, 직접 만드는 단풍나무 포토존 설치, 일부 유료 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무료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재단 교육문화팀(063-532-7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 영화 빛낼 주인공 찾아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공모

전주국제영화제가 11월 8일부터 제25회 상영작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과 비경쟁 부문인 코리안시네마, 그리고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 대상 지역공모 부문이다.

이번 상영작 공모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출품작들의 예심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오랜 기간 진행할 예정이므로, 영화 출품 부문에 따라 작품 접수 마감일이 서로 다른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단편 부문은 2023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이며, 장편 부문은 2023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이므로 출품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공모는 모든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에 장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다.

단, 2023년 1월 이후에 제작이 완료된 영화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일 이전에 국내에 상영된 적 없는 코리아 프리미어 혹은 그 이상의 프리미어 조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한다.

한국경쟁 부문은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만 출품할 수 있으나, 한국단편경쟁과 비경쟁 부문, 지역공모는 감독의 연출작 횟수에 상관없이 공모할 수 있다.

영화 상영시간(러닝타임) 기준은 40분 미만

은 단편, 40분 이상은 장편으로 구분한다.

지역공모 출품은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감독, 제작자의 작품이거나 전북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교의 재학생 또는 전북 지역에서 50% 이상 로케이션을 두고 제작된 작품이라면 출품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또는 비경쟁 부문의 작품과 함께 코리안시네마에 초청돼 관객과 만난다.

자세한 출품 규정 및 저작권 관리 규정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사이트(https://entry.j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출품작 접수 또한 온라인 출품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출품작 접수를 마감한 이후 내부 심의와 예심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경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본선 진출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담당자(submission@jonjufest.kr, 02-2285-0562)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 영화의 비전을 확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창작자 발굴과 한국 독립영화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올해 진행된 영화제에서는 42개국에서 초청된 247편의 작품이 상영됐으며 약 6만 6,000여 명의 관객이 영화제에 방문했다.

그밖에 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들은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초청 및 수상하는 등 활발하고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